

Part 1 — 돈의 종말

두 곡선의 데칼코마니 — 데나리우스 95%와 달러 97%

- 정리 2026-05-07

두 곡선의 데칼코마니 — 데나리우스 95%와 달러 97%

2,000년 전 로마 데나리우스가 95%에서 5%로 떨어진 이야기와, 1962년 1.25원이던 환율이 2025년 1,440원이 된 이야기는 같은 곡선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라는 사실이 본 회차의 출발점입니다.

비교 항목	로마 데나리우스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시작 시점	BC 27년 (아우구스투스)	1913년 연준 설립	1962년 화폐 개혁
시작 가치	은 함량 95~98%	구매력 1달러	1.25원/달러
종착 시점	AD 270~300년	2025년	2025년
종착 가치	은 함량 5% (이후 1%)	구매력 0.03달러	1,440원/달러
가치 손실	약 95~99%	약 97%	약 99.9% (1,150분의 1)
소요 기간	약 300년	112년	63년 (1962 기준)

로마가 300년에 걸쳐 진행한 일을 미국은 약 1/3 시간에, 원화는 약 1/5 시간에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속은 더 짧은 구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속의 정체 —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

데나리우스 안에서 시간을 잘게 자르면 가속이 또렷합니다. 강의 본문이 정리한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은 함량	구간 변화
1세기 초 (아우구스투스)	95%	출발선
1세기 말	75%	100년에 -20%p
3세기 초 (193~217)	45%	100년에 -30%p
3세기 중 (270년대)	5%	70년에 -40%p
3세기 말 (300년)	1%	사실상 가치 0

1구간(95% → 45%)에 220년이 걸렸는데 2구간(45% → 5%)은 단 70년에 끝났습니다. 산술급수 1·2·3·0이 아니라 1·2·4·8·16의 기하급수입니다.

외부 자료가 강의 곡선을 검증합니다(† 1). 학술·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가 데나리우스는 95~98% 순도였고, 네로(54~68) 시기 약 93%로 첫 인하, **넵티미우스 세베루스(193~211)에 50%**, **카라칼라(215~217)가 도입한 안토니아누스는 40%**, **아우렐리아누스(270~275)가 5%**로 떨어뜨렸습니다. 황제별 정확한 수치는 강의 본문보다 더 세밀하지만, **220년 + 70년의 가속 곡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데나리우스 가속은 단일 황제의 결정이 아니라 250년에 걸쳐 누적된 황제들의 연쇄였다는 점이 추가 시각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느려 보입니다. 30년 전 "\1달러 가치가 0.5달러 되겠어?" 하고 묻던 사람이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속 구간에 들어서면 같은 5%p 하락이 200년이 아니라 5년에 일어납니다. **다음 가속이 어디서 끊길지가 이 회차의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 — 닉슨 쇼크와 80년 1,150토막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의 본질적 시작점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 설립**입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달러를 대량 발행하는 구조가 그때 자리 잡았고, 그 후 100여 년간 1달러의 구매력은 0.0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 약 97% 손실.

결정타는 1971년 **닉슨 쇼크** — **금태환 중단**이었습니다. 금이라는 닷이 사라지자 중앙은행이 이론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데나리우스 2구간 가속과 똑같은 곡선이 시작됐습니다. 닉슨 이후 카터·레이건·부시·클린턴·오바마·트럼프 1기·바이든을 거치며 가속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다.

한국은 더 빠릅니다. 1962년 화폐 개혁 시점 1.25원이던 달러 환율이 2025년 1,440원입니다. **63년에 1,150분의 1 토막**. 1945년 대비로 보면 **10만분의 1 토막**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의 안정기를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그 20년은 안정성이 회복된 시기가 아니라 **만성적 하락 흐름 안의 짧은 평지**일 뿐입니다.

같은 기간 1962년 70만 원짜리 토지 한 곳이 2025년 70억 원으로 1만 배 올랐습니다. **같은 곡선의 양면**입니다 — 화폐가 떨어진 만큼 자산이 오르는 구조.

왜 안 멈추지 — 5단계 메커니즘

\“한국도 미국도 돈을 덜 찍으면 되지 않아요?” — 답은 단호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종신 집권한 군주조차 부패와 돈 풀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4년 임기제 대통령은 임기 안에 부담을 다 짊어질 동기가 더 작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Big Cycle이 정리한 바, 어떤 제국도 200년 패권 사이클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모두 같은 곡선을 그렸고, 미국 역시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끝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너무 일찍 한 탓에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았지만,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시점이 너무 일렀을 뿐입니다.

제국이 몰락의 길을 가는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성장의 정체

로마는 정복 활동이 멈추는 시점부터 파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근현대에는 인구 감소·금리 상승·생산성 정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다음 4단계가 자동 트리거됩니다 — **정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2단계 — 자산 불평등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기득권은 자산 가격 폭등으로 부를 집중시킵니다. 로마 시대에는 보유 토지를 100평 → 1,000평 → 5만 평으로 늘리는 식이었고, 21세기에는 부동산·주식의 보유 격차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 돈은 자산가가 먼저 받고 서민이 가장 나중에 받는**다는 캔틸런 효과가 18세기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3단계 — 과도한 부채

기득권은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막는 데 정치력을 동원하며, 중산층은 무너져 세수 기반이 붕괴합니다. 정부는 빚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후기는 속주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세수를 메우려 했고, 21세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같은 패턴을 닮았다는 점을 본 회차가 짚습니다.

4단계 — 무제한 돈 찍기

채권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합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17년 20조 → 2025년 38조 → 2029년 45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강이 가 짚는 최후의 단계는 **연준의 미국 국제 적대**입니다.

5단계 —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로마는 235년부터 50년간 1,000%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280년경에는 환전상들이 로마 은화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종착점**입니다.

▮ 3대 구조 원인 환논에

약소국과 제국의 결정적 차이

부채 위기는 약소국과 제국에 모두 닥치지만, 결말이 다릅니다.

약소국은 IMF 구제금융과 빠이픈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빠집니다 — 그리스가 대표 사례입니다. **패권국가**는 자금 통화에 대한 헛된 자신감으로 무한 발행 → 통화 위해의 가속을 택합니다. (스스로 강대국으로 착각하는) 프랑스조차 IMF 경고에 "\우리가 그리스냐\”며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 패권국이 간혹이 아닌 돈 풀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아무리 패권국가라도 마지막 선택지는 국제 무한 발행 + 중앙은행의 매입입니다.

312년 K자형 화폐 — 솔리두스와 눈무스

3세기말 로마는 화폐를 둘로 분리했습니다.

화폐	구성	수령자	의미
솔리두스(Solidus)	순도 99% 금화	황제·군 장성·고위 관료	가치 보존
눈무스(Nummus)	구리에 은 코팅 (Silver Wash)	서민·노동자	매일 가치 떨어짐

결정적이었던 건 **세금**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솔리두스로만 받았습니다. 서민은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눈무스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낼 때마다 그 눈무스를 솔리두스로 바꿔야 했습니다. **일하는 만큼 가난해지는 구조** — 일종의 "\바터거지\”였습니다.

310~340년 30년간 자산별 가치 변동은 충격적입니다.

자산	30년 변동 (310~340년)	21세기 등가
솔리두스(금화)	+4,000배 이상	금 + 달러 표시 자산 + 부동산·주식
곡물·가축·토지	+500배	농지·리츠·실물 자산
눈무스(종이 돈)	사실상 100% 상실	임금 의존 + 자금 통화 현금

한 세대(30년) 안에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 4,000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K자형 화폐의 21세기 등가 — 자산 +31.7% vs 임금 +1.1%

3세기 로마의 솔리두스/눈무스는 21세기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자금 통화에 일상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 위해를 직접 받아들이고, 자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등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통해 부를 점점 키워갑니다.

외부 자료가 정량으로 보여줍니다(† 2). 미 연준의 분기별 가계 자산 분포 데이터(DF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미국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31.7%로 1989년 추적 시작 이래 최고**치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시절 22%에서 35년에 걸쳐 약 10%포인트 상승. 본 회차 강의가 인용한 "\상위 1% 소득 23% / 상위 5% 소득 40%\” (HBR 2025-08)와는 측정 단위(소득 vs 자산)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의 가속**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임금 격차**입니다. Bank of Americ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고소득층 임금 상승률은 +3%, 중산층 +1.5%, 저소득층 **+1.1%**입니다. 자산 보유자가 주식·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임금은 사실상 정체. **자산 가격이 +31.7%로 올리자면 1% 자산가 vs 임금이 +1.1%로 늘어난 저소득층** — 이 격차는 솔리두스/눈무스의 21세기 정량 등가입니다.

다행인 것은 **21세기에는 중산층도 솔리두스(금)를 일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임금의 일부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환산해 두는 것이 다음 30년의 격차를 가릅니다.

3세기 후반 — 국경 넘는 통화는 금화만

가속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곳이 **3세기 후반 지중해 무역망의 마비**입니다. 로마 제국이 속주 무역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 로마 은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자금 통화 무역이 중단됐습니다. 자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눈무스는 로마 제국 내부에만 통용됐고,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은 **금화 솔리두스만** 남았습니다.

이 흐름은 21세기에 디커플링·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제하고,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에서, 두 진영 사이의 거래에서 자금 통화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금이 다시 자기 가치를 발휘**합니다.

21세기의 솔리두스 — BRICS 6,000톤과 탈달러 14%p

\“중국과 인도,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는 로마 후기의 솔리두스 부상과 같은 흐름입니다. 외부 자료가 정량으로 확인합니다(† 3).

지표	데이터	강의와의 매핑
BRICS+ 금 보유량	6,000톤 초과 (글로벌 17.4%)	2019년 11.2% → 2025년 17.4% (+6.2%p)
2025년 중앙은행 금 매입	863톤 (3년 연속 1,000톤+ 후 첫 미달)	2022년 이전 ~500톤/년 대비 약 2배 유지
2026년 매입 전망 (WGC)	약 850톤	폴란드가 700톤 목표로 선두
달러 비중 (IMF COFER 2025 Q4)	56.77% (1994년 이래 최저)	1999년 71% → 2025년 57%, -14%p
중앙은행 설문	73%가 "\향후 5년 달러 비중 하락\” 전망 / 43%가 금 보유 늘릴 계획	모두 사상 최고 응답률

구조적 트리거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약 3,000억 달러 동결** 사건입니다 —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 보관한 외환은 압류 가능하다는 신호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 전달됐습니다. 금은 외국 관할권 밖에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국경을 넘는 21세기의 솔리두스 등가**가 됩니다.

다국화 시대 — 레이 달리오의 착각

\“미국이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다음 패권국이 된다\”는 레이 달리오의 배턴 터치 모델은 **인류 역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문명만 사실 —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모두 200년 사이클을 겪었고, 미국 역시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끝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너무 일찍 한 탓에 레이 달리오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았습다.

진짜 오류는 **다음 단계의 가정**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약 1,000년간 단일 패권국은 없었습니다. 동로마와 여러 세력이 분점한 긴 시기가 이어졌고, 신황조·산업혁명 같은 큰 전환점이 있어야만 다음 단일 패권이 자리잡았습니다. **단일 패권 → 단일 패권의 자동 교체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유럽연합도, 일본도, 중국도 단일 패권을 가져갈 결정 권한이 부족합니다. 미국 약화 이후는 **다국화 시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도 달러 일국에서 **달러와 금의 경쟁 체제**로 전환됩니다. † 3에서 본 BRICS+ 6,000톤·달러 비중 -14%p는 다국화 진입의 정량 증거입니다.

▮ 전일 신호 4종

에르도안 함정 + 노선 전환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내려간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밀어붙인 논리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표	변화	비고
M2 통화량	7,400억 리라 → 22조 2,000억 리라	30배 증가
인플레이션	정점 85% (2022.10)	1년 안에 폭등
USD/TRY 환율	1.8 → 43	24분의 1 토막
부동산 가격 지수	120 → 1,650	14배 (M2 따라가지 못함)

한국으로 옮기면 **지금 1,300원 환율이 3만 원이 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튀르키예 부동산은 14배 올랐지만, 달러 환산하면 **41% 하락**입니다. 명목 가격이 10배 넘게 올라도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면 실질 자산은 줄어듭니다. 통장 숫자만 보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해외에 한 번 나가보면 그 사이 세계가 얼마나 일어졌는지 체감됩니다.

핵심은 **트럼프의 연준 금리 인하 압박**이 **논리가 에르도안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자신감이 있어도 진행은 닮은 곡선을 그립니다.

다만 강의 인용 사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2023년 에르도안 새 경제팀을 임명하며 무한한 정책에서 정통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했고,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은 정책금리 인상 → 인하 사이클을 거쳐 **2026년 3월 정책금리 37%로 첫 동결**했습니다(5년 연속 인하 후). 2026년 인플레이션 목표는 16%, 증가 목표는 5%. 시장 12개월 인플레이 기대는 23.35%로 여전히 높지만 추세는 안정화 중입니다.

\“평행이론은 정책 동기의 달음줄을 가리키지 **결과는 아닙니다**.\” 트럼프 역시 닉슨·버ن즈 사례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정확히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는 nuance — 다만 그 결과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과 외부 충격이 동시에 빛는 함수입니다.

한국 투자자의 즉시 점검 3가지

다음 30년의 격차를 가르는 것은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입니다. 본 회차가 권하는 베이스라인은 다음 셋입니다.

① **솔리두스 후보를 분산해 보유** — 1순위는 금이고, 다음은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강의 핵심 메시지: "\2026년 솔리두스에 해당하는 핵심 가치 저장 수단은 여전히 금과 달러 표시 자산.\” 다국화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단일 수단으로(미국 물락 / 중국 부상)에 베팅하지 말고, 가치 저장 수단을 후보별로 분산해야 합니다.

② **명목 자산의 함정을 인식** — 튀르키예 부동산처럼 명목 14배 상승해도 달러 환산 41% 하락 사례. 자산 가격을 자금 통화로만 측정 X. 달러·금·실물 등 여러 단위로 환산해 점검해야 합니다. 측정 단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명목 상승에 안심하다 실질로는 후퇴합니다.

③ **매월 임금의 일부를 솔리두스로 환산** — † 2에서 본 임금 격차(저소득층 +1.1% vs 자산가 +31.7%)는 임금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신호입니다. 21세기에는 중산층도 솔리두스(금)를 일부 보유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매일 임금의 일부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환산해 두는 것이 30년 뒤 격차를 가릅니다. 30년 뒤 격차를 가르는 건 큰 결정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div><div></div>ONE LINE</div> <div> <p>한 줄로 — 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 다음 30년의 격차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가 가른다.</p> </div>	
<div><div></div>† 회차 자료 보강 (강의 본문 외부 자료 4종)</div> <div> <p>본문에 †1~†4로 표시된 자료는 강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외부 출처입니다. 4 패러다임에 매핑됩니다 — 검증(†1), 각도 확장(†2), 시간 연평(†3), 사례 후속(†4).</p> <p>†1 데나리우스 함량 변화 학술·박물관 자료 — 검증 패러다임. 강의의 "\95% → 75% → 45% → 5% → 1%\” 곡선을 황제별 정밀 데이터로 검증. 아우구스투스가 95~98% / 네로(54~68) 약 93% / 넵티미우스 세베루스(193~211) 50% / 카라칼라(215~217) 안토니아누스 도입 40% / 아우렐리아누스(270~275) 5%. 220년 + 70년의 가속 곡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일 황제 결정이 아닌 250년 누적 연쇄였다라는 시각이 추가됨. 출처: Denarius — Wikipedia / The Debasement of Roman Coinage During the Third-Century Crisis — TheCollector</p> <p>†2 미국 자산 분포 + 임금 격차 (2025 Q3, 2025-12) — 각도 확장 패러다임 (K자형 화폐 21세기 정량 등가). 미 연준 DFA 기준 상위 1% 자산 비중 31.7% (1989 이래 최고). 1990년대 22% → 2025 Q3 31.7% (35년에 +10%p). Bank of America 데이터 기준 2025년 12월 임금 상승률 — 고소득 +3% / 중산 +1.5% / 저소득 +1.1%. 자산가가 자산 가격 상승을 흡수하는 동안 저소득층 임금은 사실상 정체. 솔리두스/눈무스의 21세기 정량 등가. 출처: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just hit its widest gap in more than 3 decades — CBS News / Federal Reserve —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DFA)</p> <p>†3 BRICS+ 금 보유 + IMF COFER 달러화 (2025 Q4) — 시간 연평 패러다임 (강의 "\브릭스 금 사재기 / 다국화\” 정량 후속). BRICS+ 보유 6,000톤 초과 / 글로벌 17.4% (2019년 11.2% → 2025년 17.4%, +6.2%p). WGC 2025 설문: 73%가 향후 5년 달러 비중 하락 전망 / 43%가 금 보유 늘릴 계획 (모두 사상 최고). 구조적 트리거: 2022년 러시아 외환 약 3,000억 달러 동결. 출처: Central Banks — Gold Demand Trends 2025 (World Gold Council) / BRICS Gold Reserves Hit 17.4% — EBC / IMF COFER —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p> <p>†4 튀르키예 노선 전환 (2026-03) — 사례 후속 패러다임. CBRT 정책금리 37% 동결 (5년 연속 인하 후 첫 동결). 2023년 에르도안이 새 경제팀 임명하며 정통 정책으로 노선 전환. 2026년 인플레이 목표 16% / 증가 5%. 시장 12개월 인플레이 기대 23.35%. 강의 "\에르도안 함정\” 평행이론에 nuance — 강의 인용 시점 이후 정책이 변하고 있음. 평행이론은 동기의 달음줄, 결과의 자동 반복 X. 출처: Türkiye Today — Turkish central bank unveils 2026 monetary policy calendar (5% i nflation target)</p> </div>	
<div><div></div>자료 출처: en.wikipedia.org · thecollector.com · cbsnews.com · federalreserve.gov · gold.org · ebc.com · data.imf.org · turkiyetoday.com</div>	
	<div><div></div>정리 · content-forged · 2026-05-07</div>